

《문학과지성》 폐간당하다

책으로 쓰는 자서전 — 19

김병익 | 문학평론가 · 인하대 국문과 초빙교수

“창간 10주년을 맞아 한참 특집호를 준비중이던 1980년 7월 말일의 오전 10시 즈음이었다. 누군가 내게 전화를 해서 《문학과지성》이 등록 취소됐다고 알려줬다. 과연, 백몇십종의 정기간행물에 대해 실적 미달, 발행목적 위배 등으로 등록을 취소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알고 보니 ‘일부 불온한 지식인 집단들의 활동 근거’가 됐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 험한 시절의 검열과 판금의 그물에 요행 걸리지 않았다 해서 한 시대의 거대한 억압을 끝까지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계간 《문학과지성》이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날벼락을 맞은 것이 그랬다.

신군부의 예측할 수 없는 행태에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창간 10주년을 맞아 한참 특집호를 준비중이던 1980년 7월 말일의 오전 10시 즈음이었다. 누군가 내게 전화를 해서 《문학과지성》이 《창작과비평》과 함께 등록 취소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알려줬다. 아닌 밤중에 홍두개지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나는 라디오를 틀었다. 그런데 과연, 백몇십종의 정기간행물에 대해 실적 미달, 발행목적 위배 등으로 등록을 취소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우리 잡지와 《창비》, 그리고 《뿌리깊은 나무》가 들어 있었다. 석간 신문의 1면 톱도 이 조처를 보도했는데 《문지》가 처음 신문 1면, 그것도 머리로 오른 뉴스가 ‘폐간’이라는 기사였다. 그 다음날인가 정부 공문으로 된 통고서에는 간단히 “발행목적 위배”라고만 적혀 있었다.

불온한 지식인의 활동근거란 명목으로 폐간돼 많은 문인, 학자, 교수들이 마치 ‘문상개’ 같은 표정으로 우리 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해 황당한 혹은 근심어린 얼굴로 사태를 묻고 걱정하며 위

로해줬다. 사람들은 비판의 강도가 높은 《창작과비평》이야 미운 털이 박혔으니 그럴 만하다지만 온건한 《문지》가 폐간당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 역시 그들처럼 우리가 왜, 어떤 과정으로 이런 조처를 당해야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조처를 당한 후 사유와 전망을 알기 위해 만난 문공부 이수정 보도국장도 자신은 잘 모르고 청와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만 밝혔다. 이듬해의 언젠가 이중환이 내게 정부가 발행한 무슨 백서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일부 불온한 지식인 집단들의 활동 근거가 되는 잡지들”을 폐간했다는 구절을 발견하고서야 기왕 우리가 짐작해온 대로라는 것을 확인했다. ‘문지파’ 지식인들은 ‘창비’ 보다는 부드럽지만 비판적 사유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못마땅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온 것이다. 우리는 조판을 끝내고 교정중이던 원고들을 교정쇄로 30부를 만들어 동인들과 주변 친구들에게 폐간 기념으로 나눠줬다. 이렇게 해서 계간 《문학과지성》은 정확히 10년간 40호로 중간됐다.

뒤송송한 시국 속에서 분노와 허탈을 되짚고 있는 가운데 이제 출판사를 정비한다는 소문이 번졌다. 당시 출판협회 부회장이었던 임인규씨로부터, 문제의 출판사들을 또 어떤 이유를 붙여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무척 힘든 로비를 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후에 들었다. 그러는 가운데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이수정씨가 나를 만나자고 해서 봤더니, 자기들이 모든 것을 뒤바줄 테니 중도적인 잡지를 간행해줄 수 있겠느냐고 타진하는 것이었다. 그 제의는 어떤 점으로나 일고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나는 창비와 문지의 등록 취소를 취소하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해 말 문지 동인 넷과 황인철, 그리고 후배 중에서 영입한 오생근, 김종철들과 함께 인천으로 일종의 MT를 갔다. 회의는 무거웠다. 시국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암담할 수밖에 없는 전망 속에서, 사상과 학문,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한없이 구속될 것이고 출판과 언론은 당연히 더욱 억압돼갈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출판사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는 그 여관 방의 어두운 조명처럼, 단감하는 우리의 분위기가 것처럼 어둡고 침통했다. 논의가 끝난 후 우리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러댔는데 좀처럼 술과 노래에 끼지 않는 나까지 한자리에 끼어든 것을 보면 그때의 내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될 수 있었다.

능동적 태도로 출판할 것 결의해

어떻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장래 문제에 합의했다. 권력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가혹해지겠지만 그 비판의 밑자리에 깔려 있는 인식과 계몽의 각성과 확대에는 감시의 눈이 덜 미칠 것이며, 이 작업은 역시 검열이 둔한 역사서와 외국 저서를 통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점에 우리는 공감했고 이 방향의 기획과 저·역서 간행에 치중하기로 했다. 계간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문학과지성》이 외부의 힘으로 강제 폐간됐지만 10년 동안 간행한

것으로 그것의 시대적 의미는 다한 것으로 수락하고, 앞으로의 언젠가 지금과 같은 통제가 풀려 자유로워진다면, 그리고 그때에도 계간지 발행의 필요성이 생긴다면, 그 계간지는 복간이 아닌 '창간'이 돼야 할 것이고 그 편집 주체도 새로운 세대가 돼야 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출판을 계열화하며 이제까지 들어온 원고를 간행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번역할 책을 우리가 선정해서 역자에게 의뢰하고 주제를 잡아 저자에게 원고를 정리하도록 하는 능동적 태도로 바꾸기로 했다.

문학과지성사는 이미 1977년 윤후명 등의 신진 시인들 시집으로 묶은 <젊은 시인선>을 이듬해 황동규·마중구·정현중·오규원 등의 시집 간행과 더불어 <문지 시인선>으로 개편, 확대한 바 있고 역시 1977년에 이광수를 시작으로 하는 <작가론 총서>를 간행했으며 <최인훈 전집>(1976~79)에 이어 <황순원 전집>을 준비중이었는데, 이 간담회 합의를 계기로 좀더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출판 체제를 갖춰야 했다. 1981년 여름 서광선 교수가 번역한 피터 버거의 <이단의 시대>와 내가 번역한 휴즈의 <현대 프랑스 지성사>부터 시작되는 <현대의 지성> 시리즈가 그 첫 번째 결과였다. 그리고 1982년 가을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이념과 문학>, 빅토르 어얼리치의 <러시아 형식주의>로 이어지는 <현대의 문학 이론>을 따로 만들어 오늘의 새로운 문학 이론들을 번역 소개하도록 했다. 1984년 가을에는 <문제와 시각> 총서를 만들어 당시의 주제어인 '계급' '민중' '민족' '혁명' 등의 기초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길을 마련했다. 신용하의 사회사연구회와 제휴해 채산성에 별 기대가 되지 않는 <사회사 연구 총서>를 시작한 것은 몇 년 뒤인 1986년이 었다.

'게릴라 출판' 운동으로 무크지 간행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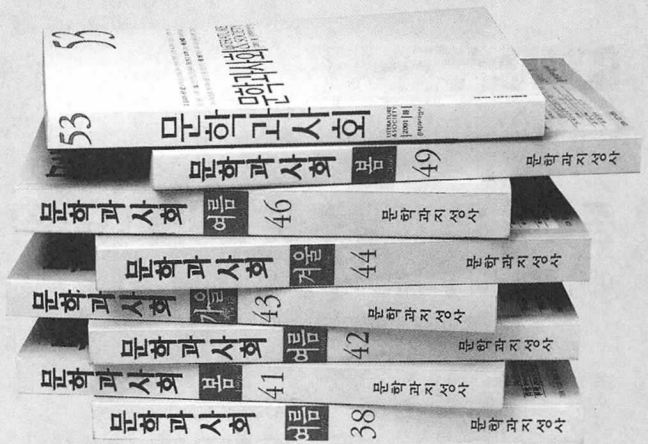
1980년대 초의 한국 출판계에는 '무크' 지가 큰 유행이었다.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이념과 운동이 권력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무척 활발했고 그것들은 글과 작품으로 쏟아져나올 판인데도 정부는 일체의 정기간행물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

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외국에서도 이미 나왔고 우리의 경우 <실천문학>에서 처음 시작된 잡지형 단행본인 무크(mook)였다. 신문과 잡지가 폐쇄된 사회에서 유일한 길이 이 무크였고 1년에 한번만 내면 되기에 잡지의 정기성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김정환이 말한 바의 '게릴라 출판' 운동이었다. 계간지를 잃은 우리도 당대의 지적·문학적·문화적 흐름을 따라가기 위한 무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 편집 동인은 1980년 겨울에 작성한 대로 우리가 아닌 후배들로 구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1982년의 <우리시대의 문학>이었다.

"어느 때보다도 교묘하고 음험한 반문화적 위협과 맞서 이를 극복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행복의 자리를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이중의 어려움"을 감당하겠다는 첫호를 '새로운 만남을 위하여'로 설정한 이 무크지의 편집 동인은 소설의 이인성, 시의 이성복, 평론의 정과리였고 이 모두는 서울대 불문과 김 현의 제자들이었다. 이 동인은 좀더 영입하고 혹은 사퇴하기도 하며 숫자가 확대됐는데 6년간 매년, 그래서 6권이 나온 후 마침내 계간 <문학과사회>가 창간될 때는 홍정선·진형준·권오룡·성민엽·정과리 등 비평가들로만, 그러나 전공은 다양한 멤버들로 구성됐다.

정권이 바뀌고 정기간행물 등록이 열리면서 '우리시대 동인' 들은 우리도 계간지를 내자고 요청해왔고 당시 활발한 문학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공인된 자리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우리는 1980년 겨울의 합의를 전제로, 후배들에게 계간지 편집권을 주기로 했고 따라서 그 잡지는 '창간' 돼야 하는 것이었으며 그런 때문에 제호도 새 이름으로 해야 했다. 여러 이름들이 떠올랐으나 그 동인들은 흡족해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이 시절의 지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1980년 <문학과지성>이 강제 폐간됐을 때, 동인들은 후에 통제가 풀려 자유로워진다면 계간지를 복간이 아니라 창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때의 합의에 따라 1988년 창간된 것이 <문학과사회>였다.

'문학과사회'가 어떻겠느냐고 권했다. 동인들은 내 제안을 받아들였고 1988년 2월에 마침내 그 첫호가 나왔다. 친구들이나 독자들은 <창작과비평>이 '속간'으로 발행하는데 <문학과지성>은 왜 복간하지 않느냐고 의아해하기도 하며 전날의 잡지에 대한 항수가 묻은 질문들을 했고, 나는 8년 전의 약속을 소개하고 그 의도를 설명해줘야 했다. 그래서 문학과지성사의 제2기 잡지가 새로이 태어나고 문지의 제2세대 동인들이 생겨난 것이다.

<문지>가 폐간된 이듬해 사무실을 마포구 아현동으로 옮겼다가 신수동의 출판단지지를 거쳐 <문학과사회>가 창간된 이듬해 4월에 현재의 자리인 서교동 양옥으로 옮기는 동안 늘어난 출판물 때문에 서교도 늘려야 했지만 문지 동인, '문사' 동인 등 참여자들의 모임도 늘어났다. 1980년 겨울 이후 우리는 매년 1월에 '신년 간담회'란 이름으로 문지-문사 동인들이 지방에서 회합을 열고 전년도의 실적과 신년도의 계획을 논의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현재는 목요일)이면 문지 동인들이 모여 바둑두고 회식하며, 금요일에는 문사 동인들이 모여 편집 계획을 짜고 역시 바둑과 술을 즐기는데 이 두 모임에는 동인 말고도 세대에 따른 친구들, 문우들이 으레 자리를 같이하게 되는데 이 전통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것이었다.●